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창업교육경험과 성별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기술창업대학원

융복합기술창업학과

김 충 만

창업교육경험과 성별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tart-up
Education and Gender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2021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산업기술창업대학원

융복합기술창업학과

김 충 만

창업교육경험과 성별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주 경 희




이 논문을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조선대학교 산업기술창업대학원

융복합기술창업학과

김 충 만

김충만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봉석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심명섭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주경희	

2020년 11월

조선대학교 산업기술창업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A. 연구배경.....	1
B. 연구목적.....	2

II. 이론적 배경

A. 창업의지.....	3
1. 창업의지의 개념.....	3
2. 창업의지의 요인.....	4
a. 개인적 특성.....	4
b. 사회적 특성.....	5
B. 사회적 자본.....	7
1. 사회적 자본의 정의.....	7
2.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7
a. 사회규범.....	7
b. 신뢰.....	8
c. 네트워크.....	8
C. 긍정심리자본.....	9
1. 긍정심리자본의 정의.....	9
2. 긍정심리자본의 요소.....	10

- a. 낙관주의.....10
- b. 희망.....11
- c. 자기 효능감.....11
- d. 복원력.....12
- D. 창업교육.....12
 - 1. 창업교육과 창업자.....12
 - 2. 기업가정신 교육.....13
- E. 성별.....14
- F. 창업자의 심리.....15
 - 1. 호기심.....15
 - 2. 도전.....15

Ⅲ. 연구 문제

- A. 사회적 자본과 창업의지.....17
- B. 긍정심리 자본과 창업의지.....17
- C. 창업교육 경험과 창업의지.....17
- D.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창업의지.....17
- E. 창업교육경험에 따른 긍정심리 자본과 창업의지.....17
- F. 성별에 따른 긍정심리 자본과 창업의지.....17

Ⅳ. 연구방법

- A. 표본설계 & 자료수집.....18
- B. 변수측정.....19

C.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21
V. 연구 문제 검증 결과	
A. 연구문제 1 & 2 검증 결과.....	22
B. 연구문제 3 & 4 검증 결과.....	22
C. 연구문제 5 & 6 검증 결과.....	24
VI. 결론	
A. 연구 요약과 시사점.....	26
B.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안.....	27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9
2. 국외문헌.....	33
부록	
1. 설문지.....	38

표 목 차

<표 1> 성별	21
<표 2> 연령	21
<표 3> 학력	21
<표 4> 측정문항	22
<표 5> 연구문제 1, 2의 검증결과	25
<표 6> 연구문제 3의 검증결과	26
<표 7> 연구문제 4의 검증결과	27
<표 8> 연구문제 5의 검증결과	27
<표 9> 연구문제 6의 검증결과	28

ABSTRACT

The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tart-up Education and Gender on Enterpreneurial Intentions

Choong-Man Kim

Advisor : Prof. Kyung-Hee Joo, Ph.D.

Department of Convergence Technology start-up major,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Convergence,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and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n the will of start-up according to experience and gender of start-up education on young people in local metropolises and middle and small cities, and to verify the research as follows.

First,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Second, positive psychology capita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Third, through experienc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social capital affects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more. Fourth, men are more affected by social capital than women. Fifth, positive psychology capita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through experience in start-up education. Sixth, men are more affected by positive psychology capital than women.

Keywords: Experienc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gender,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social capital,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youth

I. 서론

A. 연구배경

김태성(2017) 4차 산업시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 가상현실, 메카트로닉스 등 융·복합을 통해 사회·경제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단계이며, 김철영(2013) 이를 활용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과 정책에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윤정중(2007)은 중·소도시는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중심거점지역으로서 국토의 선순환체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중·소도시의 인구감소로 이어지면서 도시 발전이 지연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찬영, 이홍우(2016), 특별히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촌의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을 이유로 대도시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는데, 최석현, 이병호, 박정훈(2016) 임금이 높고 직업 및 지위가 안정된 정규직의 청년들의 대도시의 정착이 높아지고 있으며, 김용현(2012)은 청년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는 이유는 복리후생제도의 만족도와 일의 자율성과 권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오호영(2012)은 4차 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 중 52%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4차 산업 관련 분야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일수록 청년 인구가 빠르게 유출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대도시는 청년들의 인구 집중이 일어나며, 중·소도시는 인구 유출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발생 할 것이다.

금재호(2007)은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다른 연령층 보다 높으며 고등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이 노동시장과 고용지원서비스, 기업의 부족 등의 이유로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서울과 인접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역 중·소도시의 청년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차 산업의 제한적인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는 지역의 중·소도시의 청년들에게 자기개발과 개인특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창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창용(2020)은 정부는 청년들의 창직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고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기존에 수도권과 일부 지방 대도시 중심에서 이루어지던 창업교육은 중·소도시와 그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미미하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청년 창업과 정책적인 접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도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교육과 성별에 따른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B. 연구목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지원을 투입하면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나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사례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성공적인 청년 창업을 위한 정보와 교육이 제대로 제공이 되어야 하며, 4차 산업 트렌드에 맞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도시의 청년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창업과 관련된 교육 경험변수, 남녀 성별 변수를 설문으로 조사하여 독립변수인 창업 교육 경험 변수와 남녀 성별 변수가 종속변수인 청년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학적, 심리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자본의 중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A. 창업의지

1. 창업의지의 개념

Bird(1988), 박지선(2015), 최창용(2020)은 개인이 목표에 따라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창업의지라고 하며, 사업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창업의지라고 하였다. 박병진(2014)은 창업의지에 대해 창업분야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수십년 동안 연구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였으며, Shapero & Sokol(1982)은 미래에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의 창업에 대한 욕구, 이를 위한 개인의 인지된 적성과 의사결정 행동이 창업의지의 특징이라 했다. Qian, Miao, Fiet(2014)은 창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활동도 창업의지의 일부라고 정의하였으며 Katz & Gartner(1988)는 계획적인 창업을 예측하기 위해서 창업의지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Wilson(2007)은 창업의지가 미래에 창업가가 되는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이지우(2000)는 개인의 창업 기회에 따라 창업의지가 나타나서 자발적으로 지역, 그룹, 단체 등에서 활발한 창업 활동을 하게 된다. Katz & Gartner(1988)는 창업의지가 창업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필수적 요소이며 Bird(1988)는 창업한 벤처기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목표가 창업의지라고 정의한다.

최창용(2020)은 선행 연구와 학자들의 연구를 정리하면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음과 설명하였다. 정연우, 반성식(2008)은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기통제, 네트워크, 성취욕구,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나타난다. 유연호, 양동우(2008)는 자율, 관리, 사업 지향성, 경력지향성, 기술,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박재환, 안승권, 윤인철(2011)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은 준 경력지향성은 가족환경이나 창업교육만족도의 긍정적인 영향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정원(2013)은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성, 위험감수성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장수덕, 이재훈(2013)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하여 위험감수성향이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진(2013)은 창업을 여러 직업 중 한 분야로 인식하고 학생들이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는 동기와 창업의지와 관계에서 창업관련 교육을 통해 창업의지 지수를 높이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자아실현과 혁신적인 롤 모델이 창업의 자기효능감에 좋은 영향을 주어서 창업의지 지수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신남(2014)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에 따라 창업의지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2. 창업의지의 요인

a. 개인적 특성

신금순, 양동우(2007), 박지유, 양해술(2014), 최창용(2020)은 창업가는 다양한 외부 환경변화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기업을 설립하여 성공에 이르기까지 헌신하는 사람이다. 강병오, 김진수, 안성식(2010)은 기업가 마인드는 기업가 정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박지선(2015)은 예비창업자의 기업가 마인드 확립은 창업의지를 높이는 수단이 되며, 조영조(2016)는 개인 창업은 다양한 결정과 책임을 혼자서 선택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창업가의 창업의도에는 개인적 특성 요인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Morins & Lewis(1995)는 “창업가 없이는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창업가의 특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였다.

Bird(1988), Crant(1996), Krueger, Reilly, Carsrud(2000), Bae, Qian(2014), Miao & Fiet(2014), 최창용(2020)은 창업의지의 심리적 특성에서 성취지향성, 위험수용성, 혁신지향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성취지향성. McClelland(1962)는 성취행동의 특징은 개인행동 뿐 아니라 경영자나 리더의 역할에도 적합하다고 보았다. 김대업, 오재신(2012)은 목표달성을 위한 진취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도전의 심리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성취지향성을 정의했다. 고수일(2002)은 성취지향성은 직무몰입과 관련이 깊고 자율성과 성과 연계성의 효과에 조절한다고 하였다. McClelland(1962), 최창용(2020)은 성취지향성은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위험성을 감안하면서도 목적에 도달하려는 경향이 높다. 또한 창업자의 성취지향성은 창업의지와 정비례하며, 기업가적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정연우,

반성식(2008)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도전을 계획하며, 일반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목표지수를 통해 경쟁적 성장을 유도한다.

둘째, 위험수용성. 최진식(2008)은 위험수용성은 위험성 보다 이익에 더 비중을 주는 것이며, Kuratko & Hodgetts(2000)는 창업가는 주어진 위험을 수용하여 적극적 행동으로 위험수용성 지수를 높여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오상훈, 하규수(2013)는 창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위험수용성은 낮은 지수가 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높은 지수이다. 지수에 따른 창업가의 특징에 맞춰서 창업의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해야 한다. 최창용(2020)은 예비창업가들이 취업보다 창업을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위험수용성이 낮은 지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셋째, 혁신지향성. 문창호, 김시연(2016) 혁신지향성은 기업의 경쟁우위를 위한 중요한 의미로 기업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Schumpeter (1942)는 혁신지향성이 새로운 융합이 급변하는 시장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근거라고 주장하였고, 박지선(2015)은 새로운 도전하는 정신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는 혁신지향성 지수에 따라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결과를 내었다. 따라서 혁신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실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b. 사회적 특성

최창용(2020)은 창업가에게 사회 환경적으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창업의지를 가질 수도 없을 것이며, 창업 시작점에서 사회 환경적 상황은 창업가의 혁신지향성과 성취지향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은 다양한 연구조사를 통해 사회 환경적 요인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첫째, 사회적 인식.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구성원들과 의견을 교류하며 목표한 활동을 실행하는데, 이는 일상 생활 뿐 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Swanson & Webster(1992), Gnyawali & Fogel(1994), 성창수, 김진수(2011)은 사회적 인식의 긍정과 부정에 따라 창업의지는 정비례로 영향을 받는다. 즉 사회적인 인식이 창업에 대해 부정적일 때 창업자의 창업의지와는 별개로 창업시작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은 창업의지와 관계가 깊으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Adler, Kwon(2002), Tehseen, Ramayah(2015)는 창업자의 성과 개선의 발달에 개인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주어서 창업의지와 깊은 관계를 가질 것이며, 사회 환경적 요인이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창업성공모델. 정연수, 조성의(2013)는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창업성공모델을 통해서 창업자의 동기가 유발이 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창업 성공모델 자체가 창업가에게 좋은 사례가 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Hisrich(1990)는 좋은 창업성공모델은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창업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성공한 창업가는 가족 및 지인들에게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도 한다. 특히 Crant(1996), Hmieleski & Corbett(2006)는 부모가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 예비 창업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족의 창업성공사례에 따른 예비창업가의 창업지수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창업지원정책.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책과 방법을 통하여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정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정책은 예비창업자부터 창업3년 이내, 7년 이내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기본교육, 실무교육, 초기사업 자금 지원과 같은 전반적인 교육 통합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투자활성화로 인한 IR교육도 제공한다. 창업자가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초기자금지원으로 이 또한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김영선(2015)은 전문적이며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통하여 창업 의지를 높이며, 실질적으로 창업성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가진다.

넷째, 사회적 네트워크. 백수민(2014)은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의지를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된다고 입증하였으며, Putnam(1993), 최창용(2020)은 사회적 네트워크는 마케팅, 초기지원, 판로개척, 기술지원, 투자 등 창업가들이 성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질에 따라 예비창업가의 창업의 성공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써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윤방섭(2002)은

성공적인 창업자로 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심리적인 자문 같은 사회적인 지원정책의 제공을 받으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B. 사회적 자본

1. 사회적 자본의 정의

최창용(2020)은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확장이 일어나고, 이는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필요의 만족과 생존 조건을 개선시키는 잠재적인 실체라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연구 주장한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김승현(2008)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 및 네트워크, 규범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하였고, Bourdieu(1986), Coleman(1988)는 사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으로 정의하였고, 사회적 경쟁에 사용하는 에너지이며 인적자원, 물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3대 생산요소로 보았다. Coleman(1989)은 사회적 자본은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계, 즉 조직이나 집단의 인간관계 내에서 존재한다. 기존의 인적, 물적 자본 등 과 같은 전통적 자본과는 구분되는 무형의 자원으로 기업은 이를 통해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 내 개인이나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부터 창출되는 자원의 총합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Fukuyama(1995), Inkpen and Tsang(2005)는 사회적 그룹은 신뢰는 통하여 같은 목적을 협력하고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협력 제안하며, 각 개인과 조직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속에서 동료 관계를 통해 형성된 모든 자원을 사회적 자본이라 하였다.

우대일(2015), 최창용(2020)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자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에 대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원간의 연대를 높이고 상호간의 존중 속에서 만들어진 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a. 사회규범

정갑영, 김동훈(2019) 규범은 사회구성원의 책임감으로 바탕으로 상호간에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의 구성원은 신뢰 있는 행동에 댓가

로 미래의 타인의 신뢰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Coleman(1988)은 규범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호혜성과 이탈 행동에 대한 방지하는 규범을 통하여 제약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공동체의 사회적 자원과 지위, 명예 등의 보상을 강화해 준다. 또한, 규범을 통해서 공동체의 이탈을 방지하여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홍현미라(2005), 최창용(2020)은 규범을 상호 호혜성으로 볼 때 개인을 포함한 국가나 사회 등을 위한 선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 나눔, 돌봄, 헌신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b. 신뢰

정갑영, 김동훈(2019) 신뢰는 조직 협력의 근간이 되며, 사회 결속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또한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Coleman(1988), 최창용(2020)은 신뢰는 의무적 행동과 신뢰성의 정도로 나누어지며 사회적인 욕구의 존재와 그에 따른 자원의 양, 네트워크의 활성화의 차이, 도움 및 협력에 대한 인식차이, 사회적 규범과 계약 등의 요인 등이 영향을 준다. 박병진(2008)은 공정성의 제고에 따라 사회적인 신뢰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신뢰 관계는 친숙한 사람, 모르는 사람, 정책적인 관계 이렇게 3가지로 구별하였다. Jackman & Miller(1998)와 Foley & Edwards (1999), 허춘옥(2013)은 친숙한 사람과는 가족 및 지인 관계와 같은 구조적인 형태로 가지고 있으며, 잘 모르는 사람의 정보는 신뢰하지 않고 기본에 가지고 있던 가치나 행동을 기초로 한다. 또한 구성원간의 협력적인 관계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와 협의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관심을 토대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c. 네트워크

안성호 & 광현근(2004)은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의 필수적이며, 이는 신뢰와 규범에 따른 네트워크의 구조의 변화가 사회적 자본의 성격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송경재(2004)은 수평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 될 조건을 주고 단체의 민주적인 운영과 상호 신뢰를 증진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최창용(2020)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네트워크에 대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규범화를 통한 최초 도입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Gittell & Vidal(1998)와 Stone & Hughes(2002)은 네트워크는 신뢰와 규범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또한 신뢰와 규범이 작동되는 것이 네트워크라고 정의하며 신뢰와 규범에 필수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뢰, 규범,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요소이기에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 속에서도 3대 중요 구성요소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Leana & Pil(2006), Acquaach(2007), 장금성, 오숙희, 김은아(2011)은 현재까지도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기준이 분명하게 합의되어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정의를 가지고 신뢰, 규범, 네트워크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한다.

C. 긍정심리자본

1. 긍정심리자본의 정의

이순늬, 김정아(2017) 긍정심리자본을 “사람과 사물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마음속의 기본이 되는 돈이나 수단”으로 사전적 정의내릴 수 있다. 김혜영(2013)은 긍정심리학의 연구와 활동이 공동체의 조직관리, 리더십과 같은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접목되며, 조직행동 분야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의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를 이해하고자하는 새로운 인식이 나타나면서 조직의 이해 문화가 넓어지고 있다. 정대영, 박권홍, 서장덕(2011)은 긍정심리자본과 리더십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변혁적 리더십을 통한 긍정심리자본은 직원들의 직무만족과 혁신성향,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uthans(2002)는 긍정적 조직행동의 핵심적인 중요 요소를 4가지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자기 효능감, 낙관주의, 복원력, 희망이다. Youssef & Luthans(2007), Luthans(2008)는 긍정적 심리 자본에서의 자기 효능감, 낙관주의, 복원력, 희망은 각각의 독립적인 개념들이며, 실증연구를 통해 각 측정항목에 대한 판별타당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 및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통하여 긍정심리자본이 성장·발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Luthans, Youssef(2004), Avolio, Luthans(2006), 최창용(2020)은 ‘당신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긍정심리자본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 개념처럼 개인적 긍정적 심리가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김혜영(2013), 최창용(2020)은 심리적 수용력과 자발적으로 잠재력을 개발 발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긍정심리자본이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과 차이가 있으며, 특히 기업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경쟁우위를 지키며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은 이루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진입한 시장에서 경쟁 상위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적 자본 즉, 사회적 자본 개념을 받아들였다. 또한 최용득, 이동섭(2011)은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의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직장의 행복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2. 긍정심리자본의 요소

a. 낙관주의(Optimism)

Scheier & Carver(1985)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신념이 낙관주의라고 정의하였고, Carver & Scheier(2003)은 긍정조직행동 관점에서 보면 낙관주의는 개인의 행동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uthans(2008), Lu, xie & Guo(2018)은 낙관주의는 인지 및 정서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인지적 요소의 특징은 현재와 미래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목표지향적인 신념이고, 정서적 요소의 특징은 개인이 사물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또한 낙관주의자는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동기부여로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장애물로 인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 믿음을 가진다고 정의 하였다.

Seligman(2011)은 귀인이론의 관점에서 낙관주의를 가지면 현재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며, 안정적 귀인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Kluemper(2009), Xanthopoulou, Bakker & Ilies(2012)는 개인에게 상태적 접근방식을 도입된 낙관주의는 쉽게 변하고,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김혜정(2003)은 낙관주의는 실패 했을 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변경하여 스스로에게 파괴적인 생각과 말을 할 수 있게 바꾸어 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였다.

b. 희망

희망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인지를 의미하며, Snyder(1994;2002)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과 위험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해결 어려울 것 같은 문제에 대하여 쉽게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대안을 모색한다.

Rego, Souto & Cunha(2009)는 높은 희망지수의 사람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또한 최창용(2020)은 높은 희망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표에 도달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면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을 가지며, 하동현(2018)은 희망지수가 높은 사람은 지수가 낮은 사람에 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다. Zhou & Ren(2012), 최창용(2020)은 긍정심리자본에서 희망은 창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희망지수를 가지는 경우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면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 한다.

c. 자기 효능감

최창용(2020)은 긍정심리자본의 중요 요소 중 자기 효능감이 가장 적합한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Luthans, Avolio & Youssef(2007)은 다섯 가지 자기 효능감의 특징을 정의하였다. 첫째, 익숙한 영역에서 높고 처음 맡은 영역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 둘째, 반복적인 연습에 의하여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셋째, 개선 사항이 반드시 존재한다. 넷째, 타인의 조언이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 습득 능력, 기술 등과 같은 요인은 통제가 가능하다.

Stajkovic & Luthans(1998)은 자기 효능감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고, Bandura(1986)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행동 과정, 동기부여, 인지적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정의한다. Bandura(1977)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 부족에서 문제를 찾고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 부족에서 원인을 찾는다. 따라서 높은 자기효능감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동기를 주게 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만들지만, 낮은 자기효능감은 쉬운 문제도 회피하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서 기회를 놓치는 악순환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d. 복원력

Masten(2001)은 복원력은 심리적 측면에서 역경에서 다시 회복하는 역량이라고 하였고, Luthans(2002)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복원력이라 하였다. Sinclari & Wallston(2004), 최창용(2020)은 복원력의 특성은 개인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인지와 빠르고 적절한 상황 행동이고, Singh, Corner, Pavlovich(2017)는 인지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복원력을 정의한다.

최용득(2009)은 복원력은 불확실성과 다양한 변화 속에서 더욱 필요하며 빠른 대응력, 적응력, 유연함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Block(1982)은 복원력이 강한 사람은 불안감에 민감하지 않고 환경의 요구에 의해 스스로 통제하는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 Luthans(2002)는 높은 복원력을 가진 사람은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가치를 찾고 삶을 성장한다. Karatepe & Karadas(2014), Hyo & Hye(2015), 최창용(2020)은 복원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업무를 비교하여 높은 복원력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며 동료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고, 내적인 안정성을 가지며 업무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만족감이 나타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D. 창업교육

1. 창업 교육과 창업자

박춘엽(1993)은 창업자가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자본을 확보하여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시스템을 창업으로 정의하였다. 안태욱, 한동희, 강태원(2019)은 창업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취업이 아닌 창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창업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초기에 높은 실패율과 낮은 성과가 나타난다. 정대용(1997), 김종재(1998)은 창업은 새로운 분야에서 기술과 능력을 가

지는 활동이며, 제조와 생산, 판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하였다. 전영갑(2005)은 창업자가 자금과 인력을 조달하여 아이디어로 새로운 업종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을 창업이라 하였으며, 백행기(2000)는 기본적인 사업 구성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목표로 삼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융복합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창업이라고 하였다. Schumpeter(1984)는 확보된 자원을 새로운 형태로 융합하여 재화나 서비스로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창업으로 보며, 이러한 도전을 가리켜 ‘창의적 활동’이라 하였다. McMullan & Long(1983)은 창업에 대해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기업을 만드는 것, Druckerz(1985)는 기존의 자원 발굴 수단이 아닌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통해 자원을 투자하는 혁신적인 활동이라 하였다.

최창용(2020)은 창업가는 팀원 및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계산하여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서성열(2018)은 창업교육에 대해서 창업을 위한 이론을 정립해가고 실습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주도하에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소상공인사관학교,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예비창업자발굴사업, 도시재생마을기업, 1인미디어양성사업 등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사업과 같은 사업에서 창업교육이 연계되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기업의 성공률이 높아지고 현대의 트렌드를 민감하게 연구하여 글로벌로 진출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2. 기업가정신 교육

김영환, 양태영(2013) 기업가정신은 기업관련 연구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주제 중 하나이며 기업가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Gartner & Baker(2010), 최창용(2020)은 개인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을 기업가 정신이라 하였다. 윤백중(2011)은 기업이 지나친 안정성 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도전이 기업가 정신이며, 이러한 정신을 가진 창업가는 기업의 성공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 이인수, 유연우(2012)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경제

에서 기업이 사업적 성공을 위해 위험성을 감안하고 창의적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정신이나 행동이라 하였다. Schumpeter (1942), 이지훈, 서환주(2015), 정기성(2015)은 슌페터는 기업가의 혁신활동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노력을 기업가 정신이라 하였다. 방진숙(2017)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기업가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창의적 도전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개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Miller(1983), Howard H. & Carlos J. Jarillo(1990), Morris(1994)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적, 긍정적 마인드로 대응하고 혁신적인 시장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기업가 정신의 핵심적인 요소로는 창의성, 혁신성, 도전의식, 통제능력, 위험감수성 등이 있다. Covin & Slevin(1991), Stevenson(1999), 박상용, 김연정(2004), 이정호(2004), Gartner(2010), 조준희, 김진수(2014), 최창용(2020)은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활동, 위험감수성, 모호함의 수용성, 진취성, 도전정신성, 내적통제, 성취성 등으로 분류 정의 한다.

E. 성별

최창용(2020)은 성별에 따른 창업의지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의 창업의도가 여성보다 높다고 하였지만, 교육을 통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공혜원(2018)은 성별조절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가 교육과 활동의도와와의 관계가 깊은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기업가 정신 교육이 창업자의 활동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정의하였다. 특히 창업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사회안전망을 중요시 여기는데 사회안전망이 높은 곳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기업가 활동의도가 더 많이 나타났다. 공혜원, 김효선(2018)은 기업가 정신과 성별의 조절효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며,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따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창업의도가 낮지만 교육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실무적으로 교육을 확산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 창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추승엽, 공혜원(2019)은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나이와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보면 남성은 역 U자형인 반면 여성에게는 부(-)관계가 나타났고, 개인의 얻는 이익에 대비하여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도는 남성에게서 부(-)의 영향인 반면 여성에게

는 관계유의하지 않았다.

F. 창업자의 심리

1. 호기심

Voss, Keller(1983), Reio, Wiswell, Thongsukmag(2006)는 새로운 지식이나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호기심으로 정의했다. 금융필, 김판수, 장영혜(2020)은 호기심은 창업을 계획하거나 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높다고 확인하였다. Litman, Spielberg(2003)는 호기심은 심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만족도가 낮은 경우 개인은 욕구 불만족, 불편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Litman(2005), 최창용(2020)은 사람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자극에 노출되면 그에 대한 학습의지로 인해 호기심이 생기는데, 이는 자극을 준 대상에 대한 지식 습득의 욕구 때문이다. 성영신, 김학진, 이현진, 김희진, 김보경(2008)은 호기심의 충족은 자존감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호기심을 충족하면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호기심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Loewenstein(1994)은 호기심의 특성은 지식적 탐구를 통하여 다른 대상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Berlyne(1971)은 호기심은 인간의 탐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주장했으며, 다양한 환경과 자극이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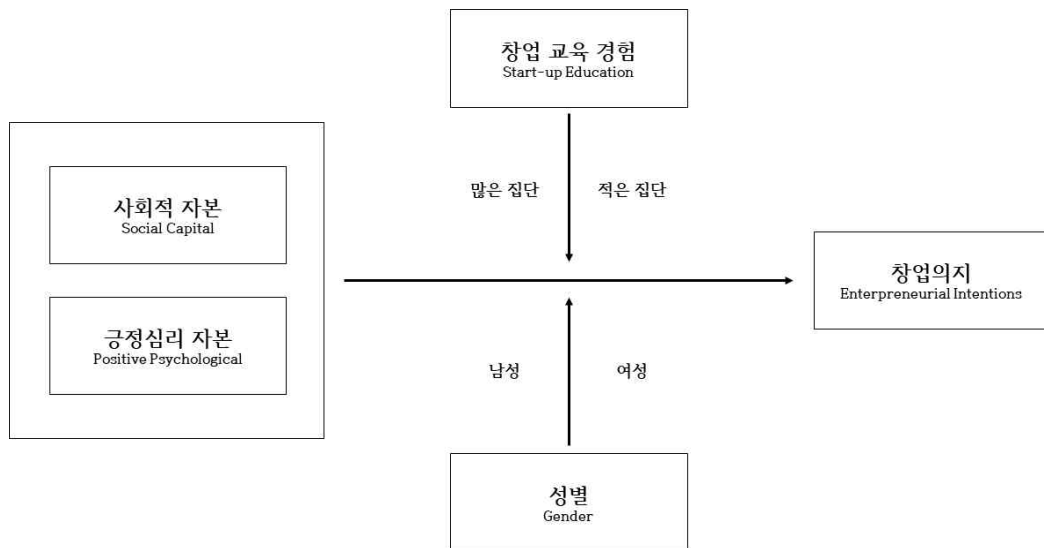
2. 도전

Musson, Gibbons(1988)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도전의식으로 정의하며 상호간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도전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개개인의 원하는 목표의 기준을 정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하여 열정과 노력으로 목표를 성취하려는 기술이다. 또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구하면서, 진취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 즉 자신이 정한 목표를 추구하며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노

력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창용(2020)은 창업은 사업 운영상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재무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예비 창업자는 위험을 즐기는 유형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다. 도전의식은 이러한 준비에 도움을 준다. 이주훈(2011)은 도전의식은 개인의 목표 성취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져야하며, 성취를 위해 용기를 배양하며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어려움과 난관도 도전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떤 문제도 도전을 계속하며 이겨 낼 수 있다. Kuratko & Hodgetts(1998)는 무조건적인 도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가 허용 가능한 범위의 위험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Ⅲ. 연구 문제

- A.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B. 긍정심리자본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C. 창업교육경험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인가?
- D. 성별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인가?
- E. 창업교육경험에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인가?
- F. 성별에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인가?



IV. 연구방법

A. 표본설계 & 자료수집

문헌고찰을 통하여 제안한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70부를 배포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자 5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26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이 49.1%, 여성이 50.9%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표본의 연령대 구성을 보면, 20-25세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56.6%를 차지하고, 26-30세가 다음으로 18.9%를 차지한다. 이어서 31-35세가 11.3%를 차지하고, 36-40세가 11.3%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 혹은 초기창업자의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를 지향하므로, 표본의 연령대 구성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본의 학력은 4년제 학사가 가장 많은 76.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년제 학사가 12%, 고졸이 7.5%, 대학원(석사)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남성	130	49.1
	여성	135	50.9
	전체	265	100.0

<표 2>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	20-25세	150	56.6
	26-30세	50	18.9
	31-35세	35	13.2
	36-40	30	11.3
	전체	265	100.0

<표 3> 학력

		빈도	퍼센트
유효	고졸	20	7.5
	학사(2년제)	32	12.0
	학사(4년제)	203	76.6
	대학원(석사)	10	3.7
	전체	265	100.0

B. 변수측정

다음과 같이 제시된 변수에 대한 측정 문항은 아래와 같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4> 측정문항

	측정문항	인용 문헌
창업 교육 경험	1. 나는 '창업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편이다.	전영갑 (2005)
	2. 나는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편이다	
사 회 적 자 본	1. 나는 다른 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Nyhan & Marlowe (1993)/ 김형진 (2012)
	2.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3. 다양한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산다.	
	4.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5. 주변의 다양한 지인이나 동료와 소통하면서 산다.	
	6. 일을 할 때 주변의 인프라를 아주 잘 이용한다.	
	7. 나는 지난 1년간 창업과 관련된 훈련에 자주 참여했다	
	8. 나는 지난 1년간 창업 등을 대비하는 모임/교육에 참여했다.	

	9. 나는 지난 1년간 창업 준비와 같은 어떤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다.	
	10. 나는 지난 1년간 모임이나 단체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냈다.	
	11. 나는 지난 1년간 토론이나 모임의 회장 또는 팀의 훈련자와 같은 추가적인 역할을 맡았다.	
	12. 나는 지난 1년간 창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다른 창업 업체를 방문했다.	
	13. 나는 지난 1년간 창업 관련 학습을 위해 창업관련 센터 중 하나를 방문했다.	
	14. 나는 지난 1년간 창업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대학 또는 대 과정이나 학원에 등록했다.	
	15. 나는 창업 또는 개인 개발 박람회에 참석했다.	
긍정심리 자본	1. 나는 오랫동안 문제시 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	Luthans, Youssef (2007)/ 이동섭, 최용득 (2009)/ 박권홍 (2010)/ 김혜영 (2013)
	2.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는 법을 알고 있다.	
	3. 나는 실패했을 때 빨리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	
	4. 불가능한 일에도 나는 희망을 갖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다.	
	5. 나는 상사(다른 사람)들과 회의/모임에서 자신 있게 나의 (하는 일) 분야를 대표(말)할 수 있다.	
	6. 나는 현재 직장(하는 일)에서의 나의 목표를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 여러 상황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낸다.	
	8. 일에 문제가 있을 때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9. 회의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이야기 한다.	
	10. 모든 문제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	
	11. 필요시 혼자서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12. 나는 나의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본다.	
	13.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14. 힘든 상황이나 일을 잘 이겨내는 편이다.	
	15. 늘 모든 것을 희망적으로 보는 편이다.	
	16. 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도전의식이 있다.	
	17.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한다.	

	18. 노하우가 있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나간다.	
	19. 내가 하는 일이 내 맘대로 잘 되지 않는다.	
	20.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다.	
	21. 자신이 정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어렵지 않다.	
	22. 여러 가지 일을 빠른 시간에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	
	23. 나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일을 헤쳐 나간다.	
	24.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협업 할 수 있다	
창 업 의 지	1. 나는 나의 사업을 할 것이다.	권영국/ 윤혜현/ 이인숙 외 (2013)/ 이정현 (2019)
	2. 내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할 생각을 한다.	
	3. 창업을 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	
	4. 나의 직업상 목표는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5. 언제나 먼저 나는 창업을 생각한다.	
	6. 역경이 닥쳐도 창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C.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핵심 변수는 창업교육경험, 성별, 사회적 자본, 긍정자본심리, 창업의지이다. 각 변수들에 대한 ‘문항 간의 내적신뢰도’ 검증, 즉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s α)을 살펴보면, 창업교육경험은 0.81, 사회적 자본은 0.72, 긍정심리 자본은 0.68, 창업의지는 0.83로 나타났다. 성별은 명목척도로 신뢰도와 타당도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적 신뢰도 검증결과를 Nunnally(1978)의 연구가 제안한 평가기준으로 볼 때, 변수들의 측정항목들 간의 내적일관성 척도인, Cronbach's alpha값이 0.6 이상이 되면 측정항목들 간에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측정항목 간 신뢰성이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사료된다.

V. 연구 문제 검증 결과

A. 연구문제 1 & 2 검증 결과

1.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주장한 연구 문제 1 & 2를 재검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44, p<.00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이다. 다음으로 긍정심리자본 역시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38, p<.000$). 그러므로 긍정심리자본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문제 1과 2는 다음의 연구 문제 3과 4를 위한 기초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연구 문제 3과 4에서 검증한 창업교육경험과 성별의 조절효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 연구 문제 1 & 2 의 검증결과

종속변수: 창업의지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232	.481		-.481	.631
	사회적 자본	.544	.089	.351	6.114	.000
	긍정심리자본	.638	.146	.251	4.367	.000

B. 연구문제 3 & 4 검증 결과

1. 창업교육경험에 따른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은 창업교육경험의 조절효과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교육경험은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70, p<.001$). 다시 말해, 예비창업자 혹은 초기창업자가 창업교육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관련 교육을 다양하게 많이 받는 예비창업자들의 경우,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강한 창업의지를 갖게 하는 동기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의지는 이후 실제 창업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창업의지를 복돋는 방법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중 하나로 창업교육경험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임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표 6> 연구 문제 3 검증결과

종속변수: 창업의지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2.032	.283		7.188	.000
	사회적 자본	.344	.136	.222	2.529	.012
	사회적 자본x 창업교육경험	.070	.022	.282	3.209	.001

2.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4는 성별의 조절효과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은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62, p<.002$). 본 연구에서는 남자를 0으로 코딩하고, 여성을 1로 코딩하였다. 이로 인해 조절효과의 기울기인 베타값이 음(-)의 값이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

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강한 창업의지를 갖게 하는 동기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은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를 고취시키는데 있어서도 남·녀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다시 말해, 남성들이 여성보다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수록 창업의지가 더 강하게 고취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견점은 사회적 자본이 많은 남성들이 창업을 실제로 많이 하는 주변 현상과 일관된 결과라도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사회 현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 연구 문제 4 의 검증결과

종속변수: 창업의지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1.733	.251		6.911	.000
	사회적 자본	.633	.086	.409	7.378	.000
	사회적 자본x 성별	-.062	.020	-.174	-3.132	.002

C. 연구문제 5 & 6 검증 결과

1. 창업교육경험에 따른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5는 창업교육경험의 조절효과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교육경험은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92, p<.000$). 다시 말해, 창업교육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경우, 긍정심리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강한 창업의지를 갖게 하는 동기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창업교육경험은 긍정심리 자본과 시너지를 내고, 이로 인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가 더 고취됨을 알 수 있다.

<표 8> 연구 문제 5 의 검증결과

종속변수: 창업의지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903	.500		1.805	.072
1 긍정심리 자본	.520	.160	.204	3.258	.001
1 긍정심리 자본x 창업교육경험	.092	.017	.347	5.529	.000

2. 성별에 따른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6은 성별의 조절효과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은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8, p<.009$). 다시 말해, 여성보다 남성이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긍정심리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강한 창업의지를 갖게 하는 동기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은 긍정심리 자본과 시너지를 내고, 이로 인해 남성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가 더 고취됨을 알 수 있다. 기존 성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긍정적 사고와 도전정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와도 일맥상통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남성들이 보다 더 긍정심리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현실에서도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은 창업을 하고 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표 9> 연구 문제 6 의 검증결과

종속변수: 창업의지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578	.526		1.100	.273

	긍정심리 자본	.850	.150	.334	5.663	.000
	긍정심리 자본x 성별	-.046	.018	-.156	-2.647	.009

VI. 결론

A. 연구 요약과 시사점

본 연구는 대도시의 청년들, 즉 예비창업자 혹은 초기창업자의 창업의지에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창업의지는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낱일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창업과 창직이 필수조건이 되어 가고 있다. 이에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정부에서 교육기관에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연구에 주장한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 자본을 본 연구에서도 재확인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이 많은 청년들이 창업의지가 더 높았고, 긍정심리 자본이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교육기관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 자본을 구축하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창업교육경험과 성별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창업교육 경험과 성별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 창업교육경험이 많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창업교육 경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더불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를 갖게 하는데 더 강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 학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조절변수로 창업교육경험과 성별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학문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청년창업 정책 입안자 혹은 대학교육기관에서 창업교육을 기획하는 담당자들에게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본 연구가 확인하였다는 점과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보다 더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를 갖게 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B.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안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제한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도시별 차이를 검증한다면 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 혹은 초기창업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후속 연구자들은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통제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다.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부모/가족의 창업 지지도, 가족의 창업경험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주요한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그 효과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혹은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라는 대도시는 시민도 많고 모든 경제기반과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어 창업하기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중소도시는 다른 도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의 규모와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결과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20에서 40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간 수명이 연장되어 100세 시대가 도래한 지금은 중장년층의 창업도 필요한 시대이다. 이에 보다 향후 연구자들은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청년과 중장년층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1] 강병오, 김진수, 안성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유통연구, 15 (4), 2010, 87-117
- [2] 고수일, 「내재적 동기에 대한 성과 - 보상연계성과 경쟁, 피드백 결과의 효과」, 한국경영학회, 31(2), 2002, 509-528.
- [3] 공혜원.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 벤처창업연구 13(6) 2018, 129-141
- [4] 공혜원, 김효선 「기업가 정신교육과 창업의도의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31(12), 2018, 2223-2244
- [5] 금융필, 김관수, 장인혜 「창업가의 호기심이 도전성, 혁신성 및 경쟁추구성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5(2), 2020, 253-265.
- [6] 금재호,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사회과학논총, 9, 2007, 27-54.
- [7] 김승현. 「인수합병 후 통합 과정(PMI)에서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기업 구성원의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8] 김영선.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나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9] 김용현, 「지역 청년 역외유출 원인과 해소방안 연구」, 한국정부학회, 2012, 506-533.
- [10] 김철영, 「민간도시재생사업이 주변지역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 국토 도시계획학회, 49(4), 2014, 217-236.
- [11] 김형진, 심덕섭, 「심리적 자본이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1, 13-26.
- [12] 김형진, 심덕섭, 「심리적자본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6(11), 2013, 3003-3028.
- [13] 김혜선. 「대학생 성격유형(MBTI) 및 직업 유형에 따른 창업의지와 의 관계」. 한국벤처창업학회, 5권2호, 2010, p89-114.
- [14] 남정인. 「창업 멘토링이 창업태도와 창업의도 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15] 문창호, 김시연, 「기술혁신지향성의 선행요인과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내IT중소기업 사례」. 기술경영경제학회, 24(1), 2014, 49-84.
- [16] 박시사, 강성일,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31권2호, 2007, p187-204
- [17] 박상용. 「벤처기업업 CEO기업가정신, 구성원의 임파워먼트, 조직 유효성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모형」. 박사학위논문, 2003.
- [18] 박지선, 「개인적특성 요인과 환경적인식 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 관한 연구-예술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 2016.
- [19] 박지유, 양해술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교육을 이수한 예비창업가 중심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9(2), 2014, 97-107
- [20] 박춘엽, 「한국 대학에서의 중소기업 창업교육 현황 연구 : 강좌내용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15권 제2호, 1993.
- [21] 성영신, 김학진, 이현진, 김희진, 김보경. 「지적 호기심의 심리적 메커니즘」, 한국심리학회, 9(2), 2008, 305-331.
- [22] 안성호, 광현근, 「동네 수준의 사회자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6(4), 203, 205-231.
- [23] 오산훈, 하규수 「창업 환경 및 인식이 사업실패부담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1(8), 2013, 143-157.
- [24] 이우진. 「대학생의 직업 선택 동기가 창업에 대한 자아 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8권3호, 2013, p113-124.
- [25] 우대일, 「소상공인의 창업가적 특성이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26] 오상훈. 「청장년 및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비교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

- 위논문, 2013.
- [27] 유연호, 양동우.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요인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1권 5호, 2008, p2347-2368
- [28] 윤방섭.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한국산학경영연구, 17권2호, 2004, pp 89-110.
- [29] 장금성, 오숙희, 김은아 「간호사가 지각한 병원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행정학회, 17(1), 22-32.
- [30] 정대용, 「창업스쿨」, 21세기북스, 1997
- [31] 정연수, 조성의. 「대학생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창업교육에의 시사점」, 한국창업학회지, 8(1), 2013, pp. 57-73
- [32] 전영갑, 「창업교육이 실업계 고교생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논문, 2005.
- [33] 조준희, 김진수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17(2), 2014, 109-126
- [34] 조영조, 「한,중,일, 홍콩 대학생의 개인특성 및 사회적 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논문, 2016.
- [35] 추승엽, 공혜원. 「한국의 기업가정신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4(2), 2019, 104-122

- [36] 최창용. 「중소도시 청년들의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사회적자본과 긍정심리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 [37] 하규수. 「창업 환경 및 인식이 사업실패부담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1(8), 2013, pp. 143-157
- [38] 하동현, 「셀프리더십이 긍정심리자본 구성요인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자아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의 매개효과를 포함하여」, 관광연구 제33권 제3호, pp.1~28
- [39] 홍현미라, 「지역사회 변화전략으로써의 자원개발과정에 대한 연구-사회자본 관점 적용」,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5. p15-17.

2. 국외문헌

- [1] Bird, B.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1988, 442-453.
- [2] Bourdieu, P.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New York: Greenwood, 1986.
- [3] Burt, R. S.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4] Coleman, J. 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1988, 95-120.

- [5] Coeman, J. S. 「The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6] Crant, J. M.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1996, 42-49.
- [7] Gartner, W. B. & Vesper, K. H. 「Experiment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ccess and Fail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3), 1994, 179-187.
- [8] J. A. Schumpeter.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9] J. A. Timmons. (Journal).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1994.
- [10] Jeffrey A. Timmons and H. J. Sapienza. 「"Venture Capital: The Decade Ahead" , in The State of the Art of Entrepreneurship, in Sexton」 , in D. L. and J. D. Kasarda(eds.). PWS-KENT Publishing, 1992, pp.402-437.
- [11] Kao, J. 「The worldwide web of Chinese business」 , Harvard Business Review, 71, 1993, pp. 24-36
- [12] Karatepe, O. M., & Karadas, G.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conflicts in the work-family interface」, turnover and absence

- int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43: 2014, 132-143.
- [13] Katz, J., & Gartner, W. B. 「Properties of emerging 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1988, 429-441.
- [14]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2000, 411-432.
- [15] Kuratko, D. F. & Hodgertts, R. M. 「Effective Small Business Management, 7th Edition」. Mishawaka: Better World Books, 2000.
- [16] Leana, C. R. & Van Buren, H. J.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employment practicees.”*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 1999, 538-555.
- [17] McClellnad, D. C. 「Business drive and national achievement」. *Harvad Business Review*, 40(4), 1962,99-112.
- [18] Miller, D.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1983. 770-791.
- [19] Oh, H. J. 「The Effects of Start-Up Education Satisfaction to Start-Up Education on The Ent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the Mediating Role of Start-Up Information」, Doctoral dissertation. MokPo University, 2015.
- [20] Oldham, G. R. & Cummings, A. 「Employee creativity: Personal and

- contextual factors at wor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9(3), 1996, 607-634.
- [21] Peter F. Drucke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New York: Harper and Row, 1985.
- [22] Putnam, R.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1993, 35-42.
- [23] Rosenzweig, M. R. & Schultz, T. P. 「Market Opportunities, Genetic Endowments, and Intrafamily Resource Distribu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4(3), 1984, 03-815.
- [24] Scheier, M. F. & Carver, C. S.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3): 1985, 219-247.
- [25] Scott, M. G. and D. F. Twomey 「The Long-term Supply of Entrepreneurs: Students' Career Aspirations in Relation to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4), 1988, pp. 5-13
- [26] Seligman, M. E.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New York, Random House, 2011.
- [27] Shapero, A. and L. Sokol.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Kent, C. A. Sexton, D. L. & Vester, K. H.(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1982, pp. 72-90,

- [28] Sinclair, V. G. Wallston, K. A.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Brief Resilient Coping Scale」. *Assessment*, 11(1): 2004, 94-101.
- [29] Swanson, D. and L. Webster. 「Private sector manufacturing in the Czech and Slovak Republic: A survey of firm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92.
- [30] W. Ed. McMullan and W. A. Long. 「An Approach to Educating Entrepreneurs」, *The Canadian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1, No2, 1983, pp.32-36.
- [31] Waite, L. J. 「Working Wives: 1940-1960」, *American Sociology Review*, 1976, 65-80.
- [32] White, R. E. S. Thornhill and E. Hampson. 「A biosoci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ombined effects of nurture and natur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8, 2007, pp. 451-466
- [33] Walker, G. Kogut, B. & Shan, W. 「Social Capital, structural holes, and the formation of an industry network」. *Organizational Science*, 8: 1997, 109-125
- [34] Wyn, Johanna and Rob White. 「Negotiating Social Change: The Paradox of Youth」. *Youth & Society* 32(2): 2000, 165-183.

부록: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선대학교산업기술대학원에서 융복합기술창업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우리나라 청년 창업에 관해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각의 질문은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활동을 사실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조사결과의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법 제8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조선산업기술대학교 융복합기술창업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 : 주경희

연구자 : 김충만

1. 다음은 인구통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칸에 √체크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자 □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 20-25세 □ 26-30세 □ 31-35세 □ 36-40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고졸 □ 학사(2년제) □ 학사(4년제) □ 석사 □ 박사
4	귀하는 현재 상태는? □ 학업중 □ 취업준비중 □ 창업준비중 □ 창업 후 사업을 하고 있는 중 □ 무직
5	귀하의 가족 중에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2. 다음은 창업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업교육/기업가정신교육)					
1	나는 '창업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기업가정신 교육이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라는 3가지 요소에 대하여 받은 교육					

3. 다음은 사회적자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나는 다른 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많은 중요한 사람들을 알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꼭 처리해야 할 것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내 동료들과 업무와 관련된 좋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업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데 내 관계성과 네트워크를 잘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난 1년간 창업과 관련된 훈련에 자주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지난 1년간 창업 등을 대비하는 모임/교육에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지난 1년간 창업 준비와 같은 어떤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지난 1년간 모임이나 단체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지난 1년간 토론이나 모임의 회장 또는 팀의 훈련자와 같은 추가적인 역할을 맡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지난 1년간 창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다른 창업 업체를 방문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지난 1년간 창업 관련 학습을 위해 창업관련 센터 중 하나를 방문	①	②	③	④ ⑤

	했다.					
14	나는 지난 1년간 창업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대학 또는 전문대 과정이나 학원에 등록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창업 또는 개인 개발 박람회에 참석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긍정심리지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나는 장기적인 문제를 해석해서 해결책을 찾는 일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장/학교/모임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직장/단체/학교에서 좌절을 겪었을 때 그것을 떨쳐버리고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관련된 업무상/일상 일들의 전망이 불확실할 때 나는 보통 최악의 결과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상사(다른사람)들과 회의/모임에서 자신있게 나의 직무(하는일) 분야를 대표(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현재 직장(하는일)에서의 나의 목표를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보통 직장(학업)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와 관련된 직무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일이 잘 안될 것이라고 받아드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의 전략에 관한 논의가 있다면 참석하여 자신있게 공헌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떤 문제든 그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근무시 필요하다면 혼자서도 일을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항상 내 직무에 있어서 밝은 면을 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현재의 직장(하는일)에서 꽤 성공한 것으로 스스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보통 직장에서 스트레스 주는 일들을 잘 극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하고 있는 일의 미래 전망에 낙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업무분야에서 목표설정을 도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업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과거의 경험으로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은 결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려나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사람들을 자신있게 접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직장에서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만족시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나의 직무에서 한번에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는 믿음으로 직무를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					
24	나는 동료들에게 가진 정보를 자신있게 제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창업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언젠가는 내 자신의 업체를 가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업체를 하나 소유하여 운영할 뜻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종업원으로 있기보다는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업상 목표는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직무보다는 창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창업가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